

# 처녀 유년, 세사를 짓다

100명의 젊은이들 그 뜨거웠던 1년의 기록들 (POSCO 대학생 봉사단 사진집)



# 함께 한 날들

1. 발대식 및 건축봉사체험  
봉사교육워크샵 및 일일 건축봉사체험  
6월 27 - 28일 (1박 2일) 해비타트 군산지회
2. Cycling For Habitat 2007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주택의 소중함에 대한 거리 홍보활동  
7월 23일 - 28일 (5박 6일)  
7월 23일 - 포스코센터 - 가평  
7월 24일 - 가평 - 춘천 - 홍천  
7월 25일 - 홍천 - 평창  
7월 26일 - 평창 - 강릉 - 삼척  
7월 27일 - 삼척 - 울진 - 영덕  
7월 28일 - 영덕 - 포항 - 포항제철소
3. Korea Blitz Build (번개건축)  
8세대 주택 건축봉사  
7월 30일 - 8월 4일 (5박 6일)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
4. 팀 빌딩 - 팀별 모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키우고  
해외 건축봉사활동과 인도 현지인과의 문화교류 준비
5. Global Village India  
8세대 주택 건축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2008년 1월 22일 - 2월 1일 (10박 11일)  
인도 Bawana지역
6. 활동발표회  
프로그램 경험 나누기 및 후원금 모금을 위한 바자  
2008년 2월 18일 포스코센터



Habitat for Humanity

## 해비타트의 사명

해비타트의 사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방의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가정들을 위한 집짓기와 집고치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의 안락한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Mission Statement: Habitat for Humanity works in partnership with God and people everywhere, from all walks of life, to develop communities with people in need by building and renovating houses so that there are decent houses in decent communities in which every person can experience God's love and can live and grow into all that God intends.)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와 미소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을 알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POSCO 대학생 봉사단’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어느 곳에서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바라며 ...”

- POSCO 대학생 봉사단 김영호(단국대)





최민수  
8조  
Volunteer

김수련  
8조  
Volunteer

김현기  
8조  
Volunteer

최지혜  
8조  
Volunteer

김민  
8조  
Volunteer

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2007

posco

대학생 봉사단

Think Global!

Act Global!

posco



POSCO & HABITAT



신강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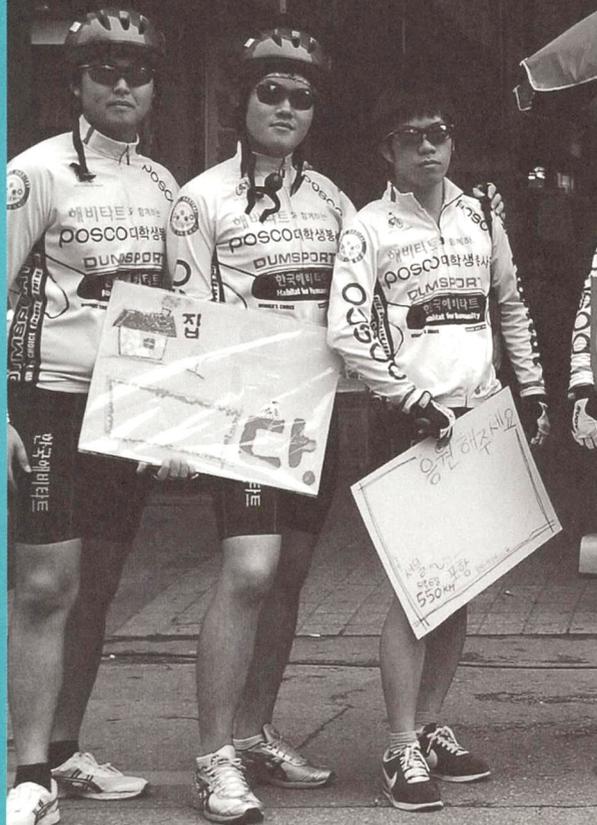


# 첫만남

100명의 젊음이 모여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 여러성

뜨거운 여름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세요 ~!

2007 HASIT  
posco!  
사람의 걸  
은 것은

O대학생분  
MSPCAT  
Exhibited for Humanity

# Cycling For Habitat 2007





##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은 일주일간 싸이클링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해비타트 주택건축기금을 마련과 해비타트 운동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 Cycling For Habitat 2007





곳은 날씨 속에서도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힘차게 페달을 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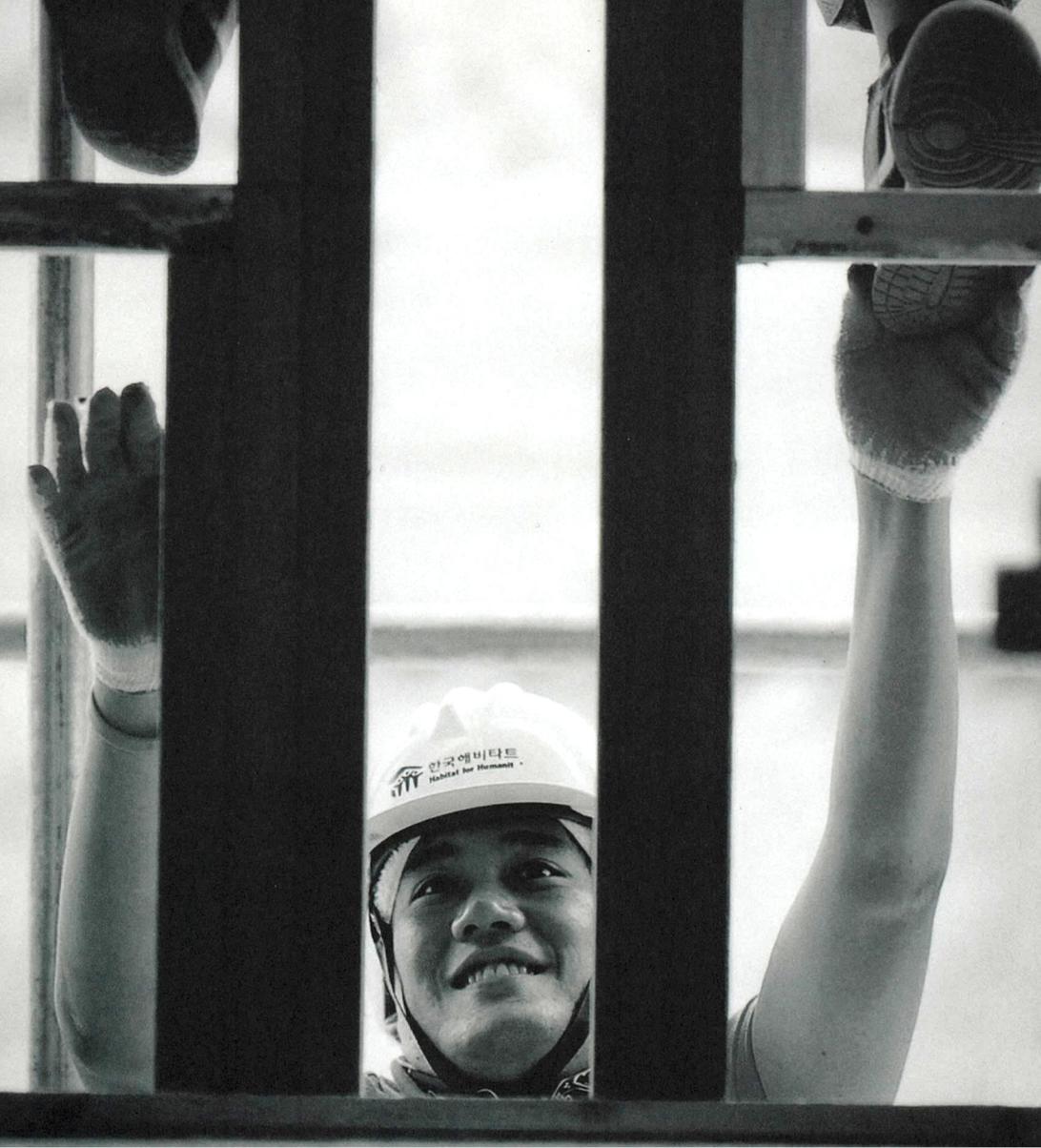
때론 너무나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주** 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을 우리는 **기억** 할 것입니다.



한국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 사랑

우리의 사랑을 나눠 줄  
누군가를 위해 망치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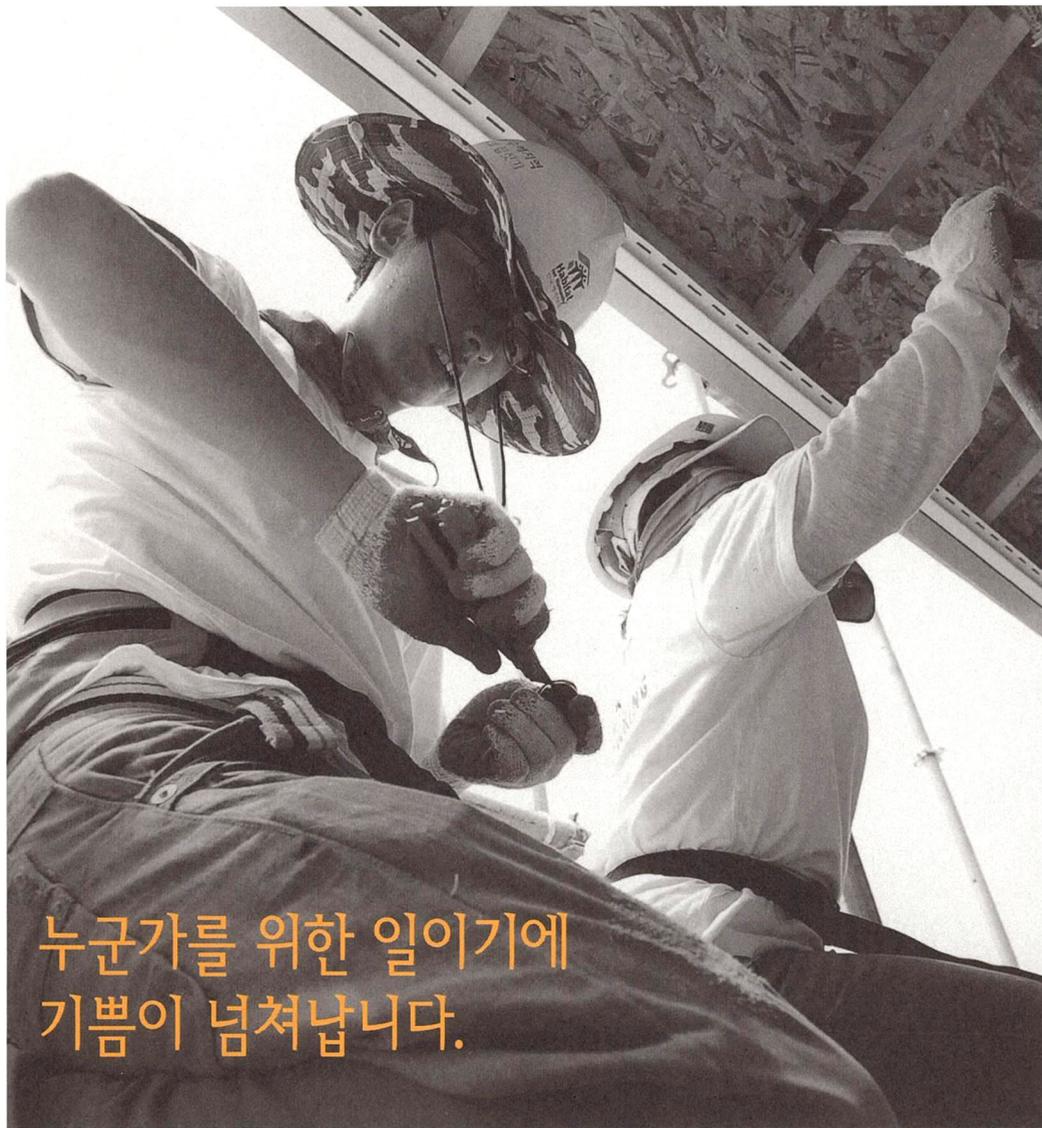


## Korea Blitz Build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운동의 독특한 노하우를 살린  
대규모 단기건축프로젝트로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정을  
건축지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진행

### 한국번개건축

- 대 상 :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
- 장 소 : 전국 곳곳의 해비타트 건축현장
- 시 기 : 매년 8월 첫째 주 일주일간



누군가를 위한 일하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 우리의 진정한 미소

희망으로 바뀌어 행복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2007년 6월 27일.

날짜도 잊을 수 없는 그 날이 우리가 발대식을 통해 처음 인연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소중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덟 달 가량의 봉사단으로서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고,  
시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마음속의 따뜻함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생각의 변화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국내 번개건축과 인도 글로벌 빌리지를 통한 건축봉사는 저에게 몇 가지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중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집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들의 미소'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단순한 건축 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홈 파트너 분들과 함께 집을 짓는 동안 그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 흘리는 땀과 미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단순히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일이 아니라,  
행복의 터전을 닦고 든든한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가족의 사랑을 담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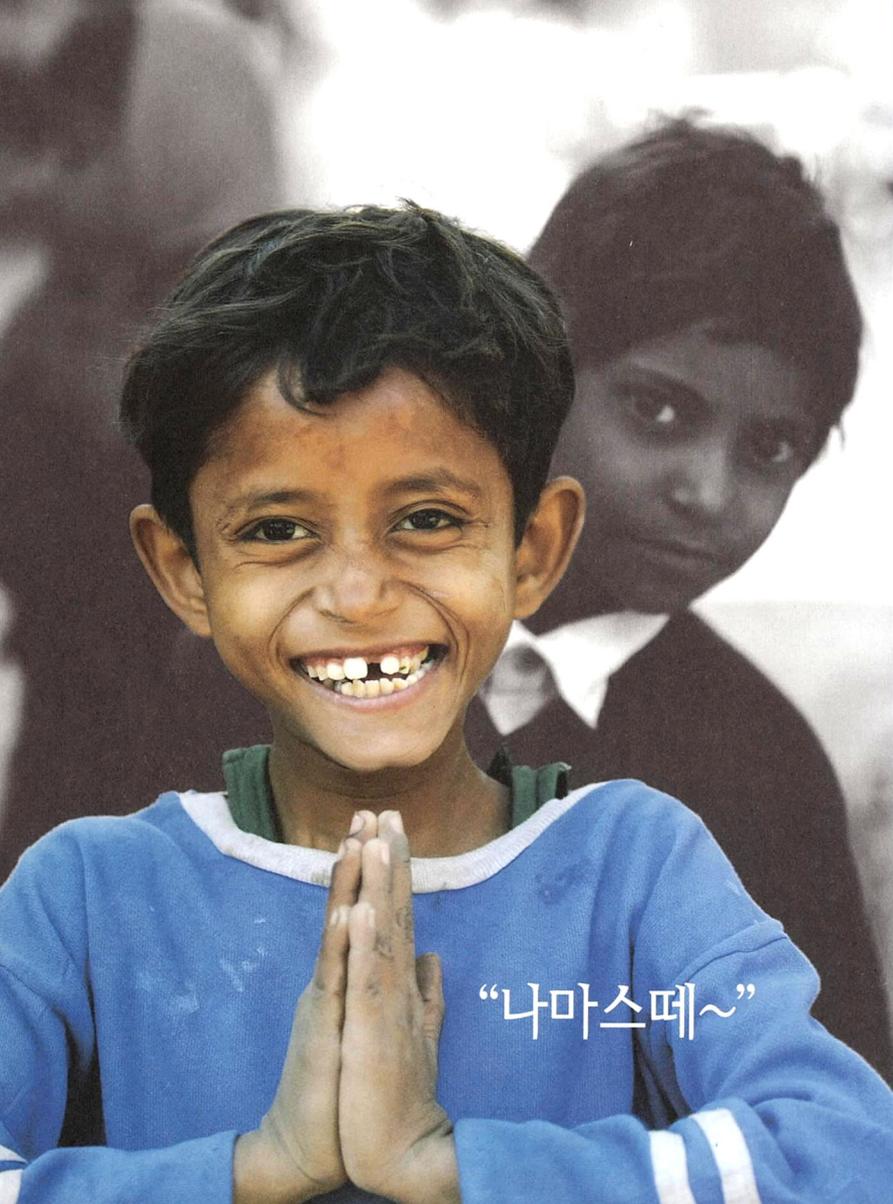
덕분에 제가 한 일은 고작 땅지질 몇 번과 같은 작은 일들이었지만 한 가정의 행복을 담은 공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눈이 크고 인종에는 콧물이 가득 늘어붙어 있는, 그리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가득 끼어  
있는 인도 바와나 거리의 아이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지저분하다는 생각 보다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천사같이 아름답게만 기억됩니다. 제가 떠올리는 그들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온 얼굴 가득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미소가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속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불렸지만 봉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배우고 돌아왔음을  
느낍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자라게 해주고 제 심장을 조금 더 뜨겁게 뛰게 해 준, 함께한 홈 파트너 분들을 비롯한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POSCO 대학생 봉사단 이혜진(숙명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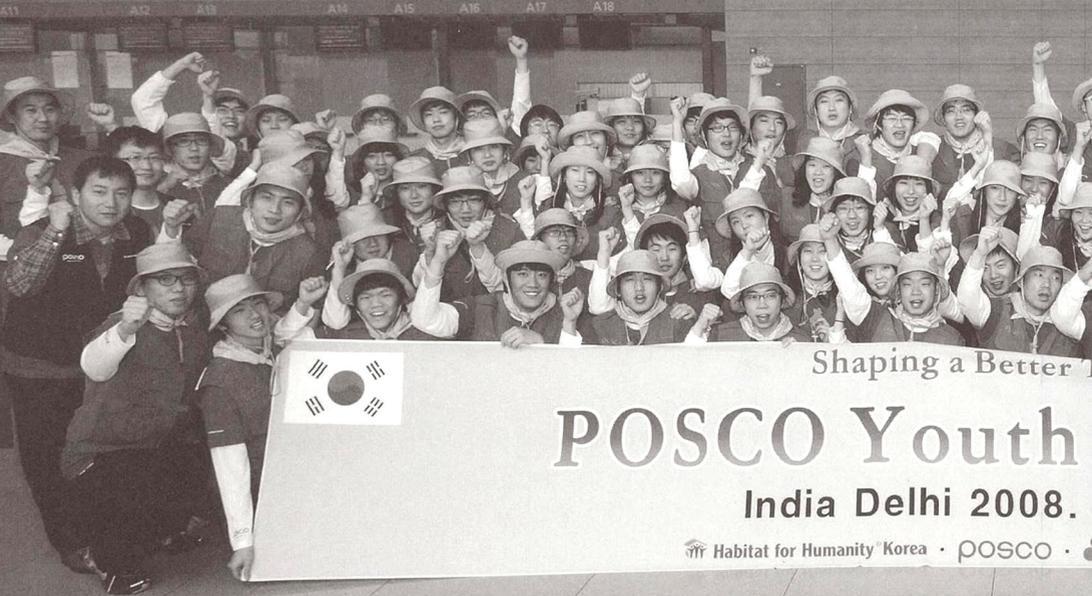


“나마스떼~”

# 희망이

우리의 모습이  
희망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습시다

# 2008년 겨울,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Shaping a Better

## POSCO Youth

India Delhi 2008.

Habitat for Humanity Korea · POSCO



MORROW

Volunteers

22 ~ 31

Community Chest of Korea





## 지구촌 프로그램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자원봉사자는 약 10일간의 집짓기와 더불어 현지 입주과정과의 문화교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어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단기건축 프로그램

# Global Villag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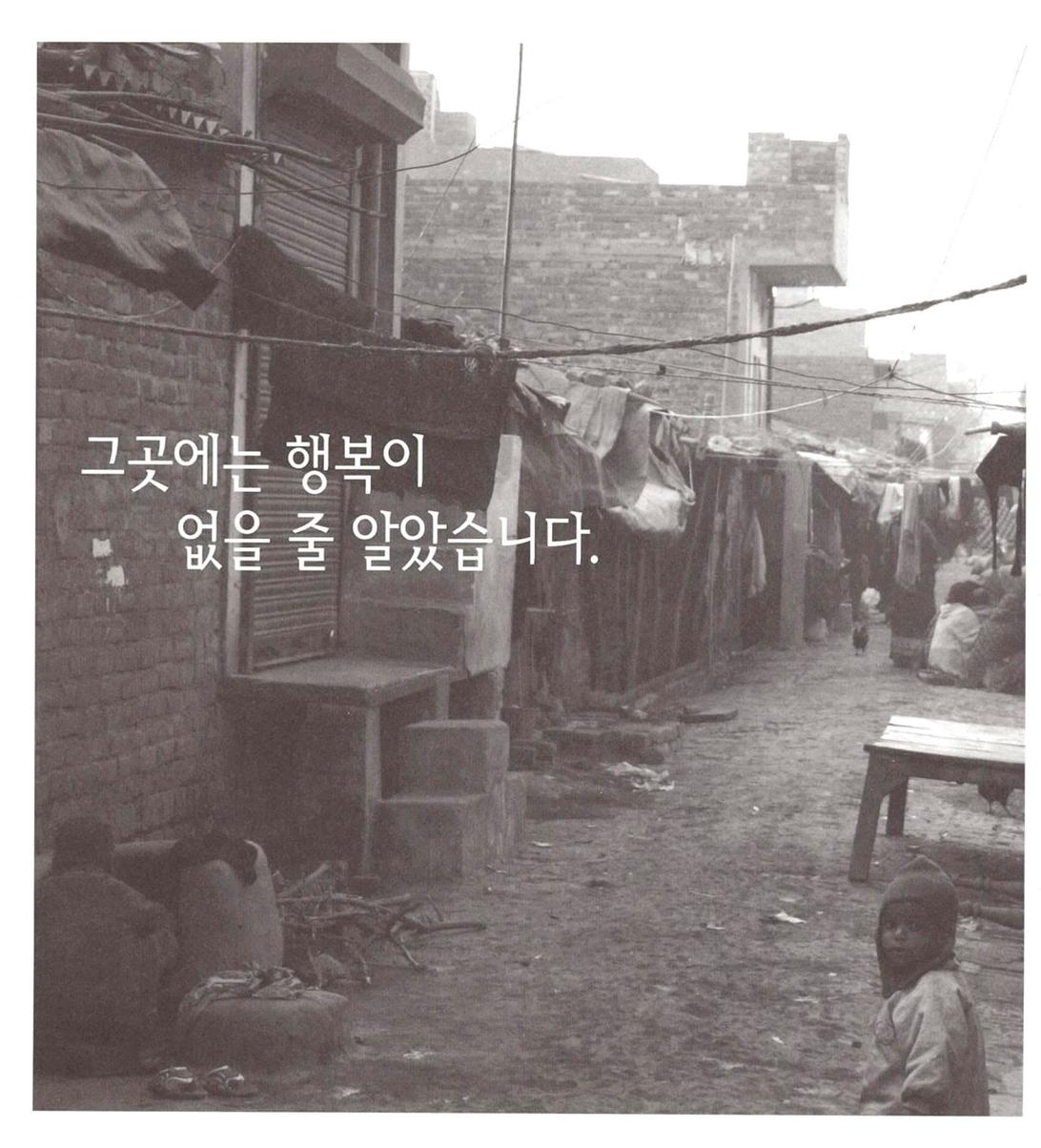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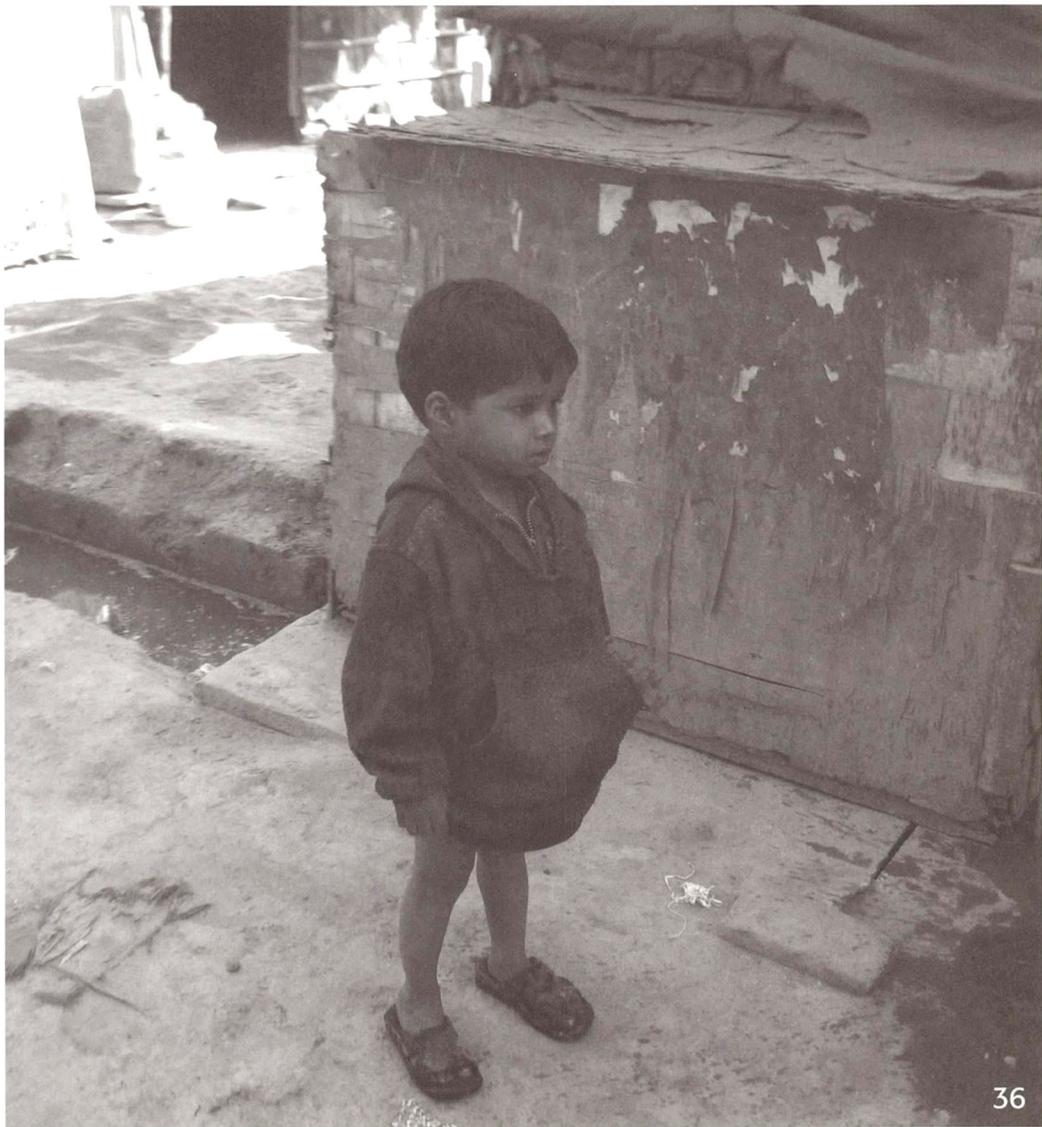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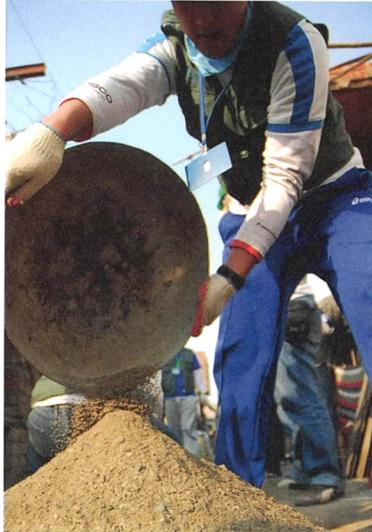


인도라는 곳의 낮설음...



그곳에는 행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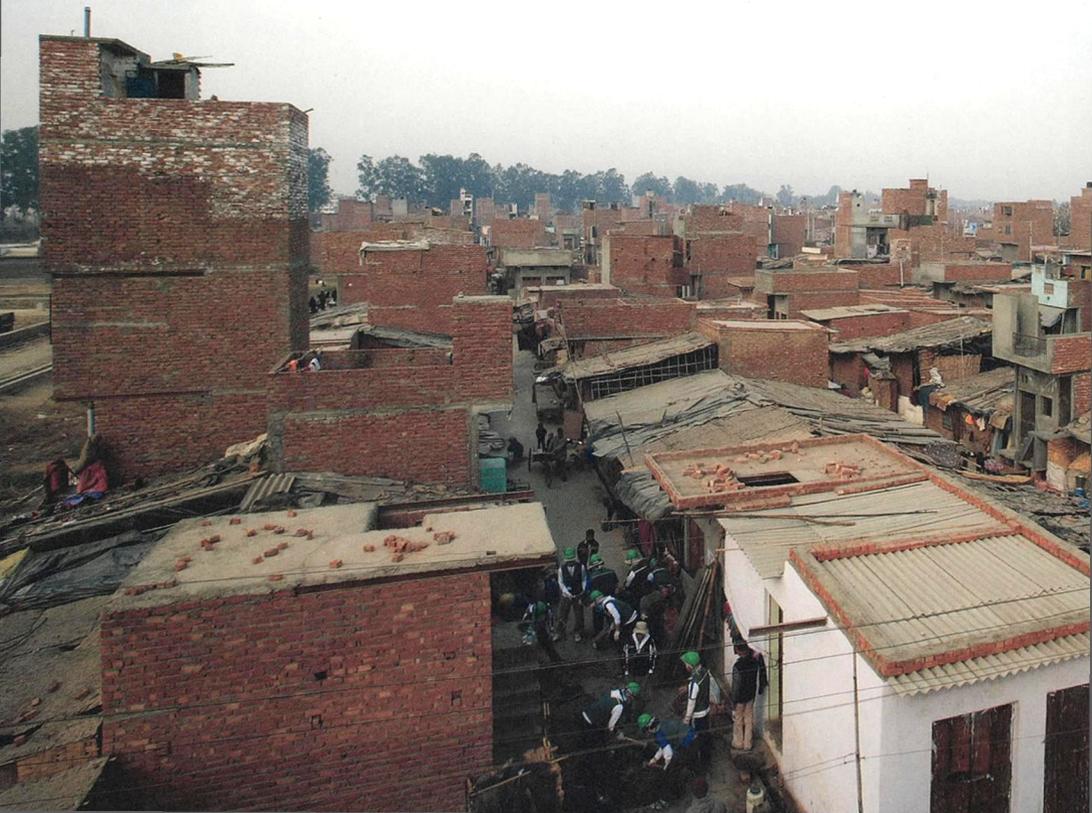
열심히 땅을파고,  
열심히 나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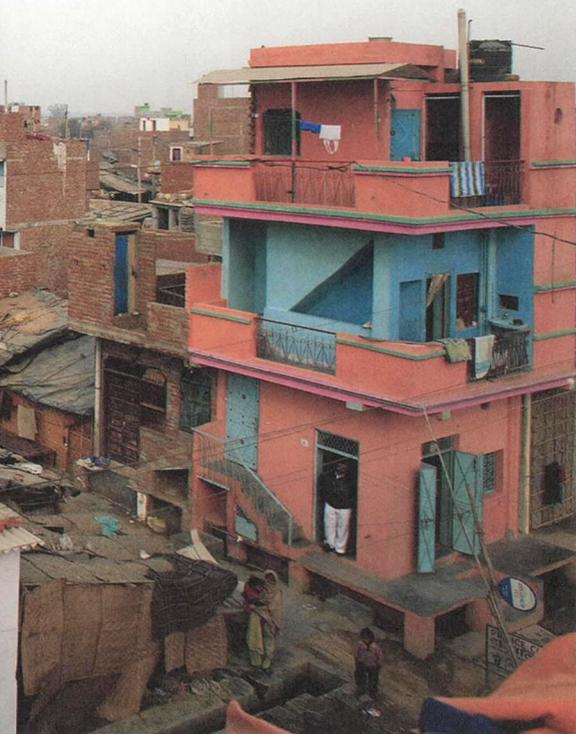
사랑의 집은  
완성되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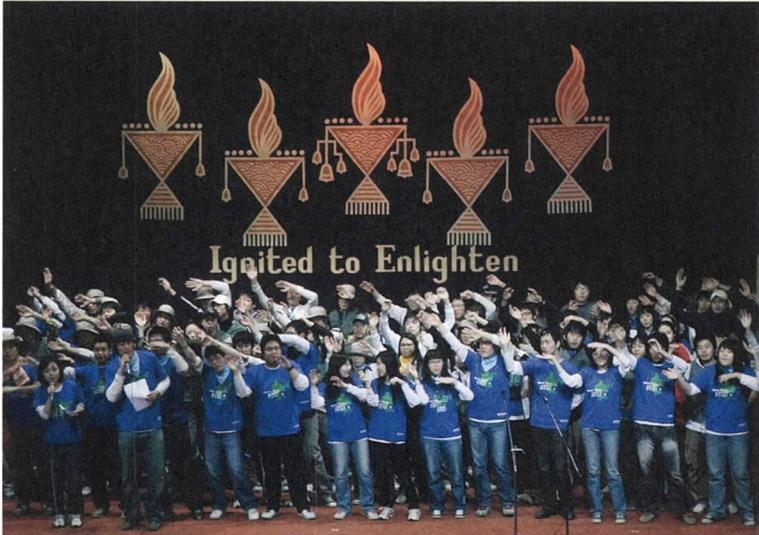
집을 짓는 과정은 행복의 터전을  
세우고 그 안에 가족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닫고 든든한 마음의 기둥을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소와 함께  
한국을 알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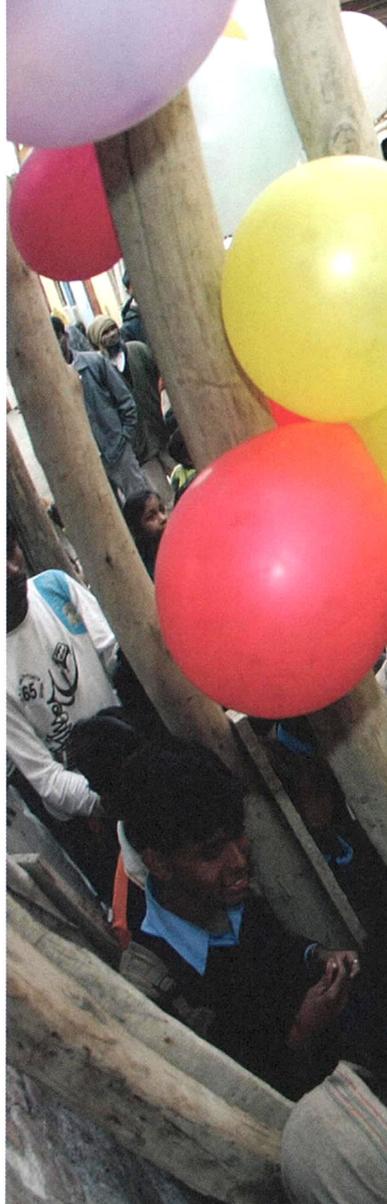
Habitat for Humanity  
Welcomes you!

BEHIND A BETTER PROMISE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AKHTAR ALI  
A-200  
A FUDIN RAINA  
FOUNDATION INITIATIVE



2007년 6월 27일 그리고 2008년 2월 18일.

우리가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으로서 함께 숨길 수 있었던 지난 236일은 마치 꿈결과도 같이 황홀하고 멋진 순간들이었습니다. 100명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던 6월 27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가진 만남이었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니었을까요?

해비타트 주택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고 해비타트 활동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서울에서 포항까지 자전거로 달렸던 CFH 또한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강원도의 고개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고 지열에 못이긴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체인이 끊어지기도 하는 등 술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는 악조건 속에서, 오토바이도 퍼져버린 언덕을 오를 때는 회의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정보가 내려질 만큼 작렬하는 햇살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과 열정 그리고 동료가 힘들어 할 때면 힘을 북돋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동료애로써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페달링을 했던 CFH의 감동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이클링 마지막 날의 포항 국제 불꽃 축제의 화려했던 장면들과 오버랩되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인도에서의 GV(Global Village).

집 앞으로 흐르는 하수도, 만만한 땀국물에 콧물이 한쪽에 말라붙은 아이들의 얼굴.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방수천으로 포장을 친 3평 남짓한 공간에 자리 잡은 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낯설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은 자만심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함께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폴짝폴짝 뛰며 즐거워하던 천진난만한 아이들. 우리의 미소에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던 현지인들. 이들은 단지 우리를 보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하여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 것 같았지만 쓴살과도 같았던 10박11일 일정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도를 떠나왔지만, 우리가 열정으로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그리고 해맑은 인도아이들과 공유했던 뜨거운 가슴은 사랑과 희망이 되어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랑한 그 곳, 바와나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1기는 공식적으로 해단하게 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흘린 열정어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까지나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써 세상을 소리 없이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그리고 2008년 2월 18일.  
그리고 내일(來日)...

- POSCO 대학생 봉사단 이정석(한양대)

열정,  
사랑,  
희망

.

.

.

그리고  
또다른 시작!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전세계의 모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해비타트의 꿈입니다.

글 · 김영호 사진 · 문규호

서울시 중구 신당동 393-38 대금빌딩 5층 (100-832)  
한국해비타트 지구촌 프로그램 담당자  
Tel : 02-2267-3702 (#402, 404)  
Fax : 02-2272-1067



한국 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Korea

[www.habitat.or.kr](http://www.habitat.or.kr)

posco



사랑의 일매

—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 —



한국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